

성당

무대 하수에 탑 조명이 들어오면 미영이 등장하여 다이어리를 읽는다.

[미영] 오늘은 드디어 우리 민이오빠와 영원히 함께 하는 날이다.
신부의 마음이란게 이런 걸까? 너무나도 떨리고 설레는 이 마음...
난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...
뭐야? 결혼 하는 거야? (다음 페이지를 넘기며)
어 뭐지? 다음페이지가? 뭐야... 끝이야?..

현주는 미사포를 머리에 쓰고 강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고
상수쪽에서는 강민과 현주의 어머니가 대화를 나눈다.

[현주어머니] 내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 들었지? (돈봉투를 건네며)
자! (돈봉투를 땅에 던지면) 그럼 믿고 가겠네...

강민은 떨어진 돈봉투를 주으며 눈물을 머금고 퇴장한다.
꽃다발을 들고 다시 등장한 강민은 기도하고 있는 현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독백한다.

[강민] 현주야.. 오늘 너무 예쁘다.
그런데 나 너랑 함께 할 수 없을것 같아.. 미안해..

강민은 무대 위에 꽃다발과 편지를 두고 뛰어 나간다.

[현주] 왜이렇게 늦지? (바닥에 놓여진 꽃을 바라보며) 어?? 꽃이네..
(꽃속에 들어있는 편지를 읽고 놀라며) 오빠...오빠... (뛰어나간다.)

음악Q: 나보다 더

6. 나보다 더

작사 박민정
작곡 손민혜

♩=64

Piano *mp*

5 *mp*

나 보다 - 너를 잘 아는 - 사람 있을까 - 나보다 더 - 널 이해 할 - 사람

9

지금 - 너를 - 두고 돌아선 - 이 순간에도 - 벌써 - 니

12

가 걱 정 돼 팬 찰 을 까